

News

“고정금리 주담대” 늘었지만... 가계대출 80%는 ‘변동금리 리스크’

동아일보

최근 신규 주담대 70%이상 고정금리

가계대출의 80%가량은 여전히 변동금리를 적용받고 있어 향후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

우리은행 정기예금, 시중은행 최초 금리 연 5% 돌파

연합뉴스

'우리 WON플러스 예금' 1년 만기 기준 금리 연 5.18%

KB국민· 신한· 하나은행 대표 상품도 곧 연 5% 넘을 듯

서울 아파트값 이번주 0.08% ↓ ... 대출 완화에도 관망세 지속

아시아경제

주택시장 거래 절벽이 길어지는 가운데 매매가격 하락세가 더 가팔라짐

대출규제 완화를 포함한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조치 발표에도 2년 8개월 만에 최대 하락 폭

대출 갈아타기 플랫폼 놓고 은행·빅테크 '총돌'

한국경제

은행 "빅테크 장악력 과도해질 것"

빅테크 "금리 경쟁 위해 구축 시급"

교보생명 5.8% 저축보험 나온다... 대형사까지 참전, 저축보험 고금리 부메랑 재현되나

한국금융

한화생명 5.7% 이어 15일 특판 판매

고금리역마진 우려 불구 공여지책

보험사들 이달만 1.2조 채권매각...당국 주문에도 현금확보 우선

뉴스1

열흘만에 전월 순매도 규모의 54.8% 팔아치워...정부 규제 완화책도 무용

저축성보험 해지 늘자 중소형사부터 유동성 저하...대형사도 매각 나설판

대형 증권사 발행어음 급증... 미래에셋 9개월새 10배 늘었다

디지털타임스

자금 경색에 유동성 확보 사활, NH·KB증권도 50% 넘게 증가

연 6% 금리 제시 등 경쟁 가열

금투세 15만명이 내야하는데...도입시점 미정에 시장은 혼란

연합뉴스

정부·여당 "유예해야" vs 야당 "내년 시행해야" 의견 엇갈려

시행 혼란에 투자자 불편만 가중...연말 주식 매도 몰리며 시장 불안 가능성도

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

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